

필리핀 대통령 가족 재산 급증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자녀의 재산이 10년 만에 최고 518% 급증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탐사보도 센터(PCIJ)는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과 딸인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시장, 아들인 파올로 두테르테 전 다바오시 부시장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공직에 있으면서도 재산이 급증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PCIJ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재산등록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테르테 대통령의 재산은 2007년 969만 페소(약 2억1,000만원)에서 2017년 2,854만 페소(약 6억2,000만원)로 1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라의 재산은 725만 페소(약 1억6,000만원)에서 4,483만 페소(약 9억8,000만원)로 518% 급증했다. /연합뉴스

‘치아 미백제’ 손상시킬 수도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 주는 치아 미백제가 치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톡턴(Stockton) 대학의 켈리 킨화학과 교수 연구팀은 치아 미백제가 치아의 상아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구강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치아 전체를 인공 타액에 넣고 비취방 치아 미백 스트립을 바르는 일련의 실험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치아 미백 스트립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에 노출된 치아는 상아질에 있는 단백질인 콜라겐이 작은 조각들로 분해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합뉴스

250억 뇌물 中 관리 징역 18년

25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그 가운데 상당액을 담장, 석탄 창고, 물탱크 등에 은닉해온 중국 지방 정부 관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중국 온라인 매체인 펑파이신문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네이멍구 자치구 통라오시 중급 인민법원은 1억5,000만 위안(약 255억원) 이상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양귀원(58) 전 우란차부시 지닝구 당서기에 대해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통라오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양귀원은 14년 동안 승진이나 정부 발주 사업의 계약 등을 대가로 부하 직원이나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챙겨왔다. 양귀원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나 공무원은 11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트럼프, EU에 “무역전쟁 안 끝났다” 경고

새 관세 부과 위협...글로벌 경제 먹구름 우려 미일 협상 곧 개시...자동차 고율 관세 ‘만지작’

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관세 부과를 위협함으로써 보호주의에 바탕을 둔 무역전쟁

이 끝나지 않았음을 천명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 우려는 이미 경기침체(Recession) 근심에 빠진 글로벌 경제를 더욱 짓누를 것

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거론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110억달러 규모의 EU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가 여러 해에 걸쳐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이는 곧 끝날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을 겨냥했던 것

과 같은 논조를 보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검토에 들어간 관세 부과 목록에 헬리콥터부터 치즈까지 여러 산업분야가 망라돼 있다는 점도 중국과 벌인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무역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2019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그룹 총회회의를 위해 워싱턴에 집결하는 세계 각국 경제정책 결정자들에게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 무역전쟁은 아직 안 끝났으며 약해지고 있는 세계 경제가 이것을 다뤄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외에(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재정립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에 대한 관세부과 추진이 미·EU 무역협상에서 압박을 높이려는 목적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항공산업 보조금 분쟁의 일환이라는 미 관리들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이 그동안 거의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만큼

양측이 앞으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철회를 위협하면서 협상을 벌인 끝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했지만, 각국 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더 중요한’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USMCA를 흔들 어놓았다.

미국의 산업별 고율 관세의 서막을 올린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계속 부과되고 있어 캐나다는 이에 대한 보복을 검토하는 등 미국에 관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도 이달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새로운 물품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오는 15~16일 워싱턴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미국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무역공세를 펼치는 와중에 한국, 일본, EU, 멕시코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트럼프-엘시시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왼쪽)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정부 상하이 시절, 韓독립운동사서 중요”

중국어 한·중 공동 심포지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 활동 시절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는 중국 학자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 독립운동사 전문가인 쑨커즈 푸단대 역사학과 교수는 10일 “27년의 임시정부 독립운동 기간 중 상하이

에서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기간은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상 의심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쑨 교수는 이날 중국 상하이 푸단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중 공동 항일 투쟁’을 주제로 열린 독립기념관·푸단대 공동 주최 학술 심포지엄에서 “임시정부는 전 세계의 한인을 이끌며

다양한 방식의 독립운동을 진행했고,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 혁명과 반침략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쑨 교수는 “중요한 것은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민주 공화정의 정체를 확립하고, 독립운동의 기초를 세워 일본 침략자에 맞선 한중 통일 전선을 구축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브렉시트 불안한 영국인들 아일랜드 여권신청 늘어

어떤 형태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되든 유럽연합(EU)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해 두려는 영

국인의 ‘제2의 여권’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아일랜드 시민권을 획득, 이중여권을 받아두면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EU탈퇴)가 현실화해도 유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에 불안을 느끼는 영국인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기방위에 나선 셈이라고 니혼게이지가 신문이 10일 지적했다. /연합뉴스

실종 F-35A 전투기 기체 일부 발견

정부 관계자 “추락 가능성...조종사 안부는 확인 안돼”



다”고 밝혔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 소속 F-35A 전투기 1대는 전날 오후 7시 27분께 미사와시 동쪽 약 135km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일본 정부는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전투기에는 3등공좌(소령급) 계급의 조종사 1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방위성 간부는 이날 이 조종사와 관련해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종된 전투기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조했는데,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조립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훈련 중 레이더에서 사라져 실종됐던 일본 항공자위대 F-35A 전투기의 기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실종된 F-35A의) 기체 일부로 보이는 부유물이 발견됐다.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

Advertisement for Xperon golf equipment. It features three types of golf balls: logo, Putting Line, and Driver Line. It also promotes the X-Machine 24 and X-Machine Duel vending machines. The ad includes a large '1000만원' (10 million won) offer and a QR code for the Xperon app.